

남기일 감독 “난 51점짜리...광주만의 DNA를 찾겠다”

(광주FC)

사커 피플

중국 러브콜 쇄도? 난 광주를 지키고 싶다
단단하고 강등 걱정 없는 팀 만드는게 목표
간절한 선수들 성장했을까 가장 뿌듯하더라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된 광주FC 남기일(43) 감독이 소속팀과 계약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채 포르투갈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축구계에선 남 감독이 광주 지휘봉을 내려놓을 것이라던 소문이 나돌았다.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택하리란 전망도 많았다. 실제로 약체로 꼽혀온 팀을 이끌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남 감독을 향해 국내는 물론 중국 클럽들의 러브 콜이 쇄도했다.

그러나 최근 광주의 1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전남 광양에서 만난 남 감독은 단언했다. “한 번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풍족하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 좀더 단단한 팀을 만든 뒤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재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남 감독이 아니라 구단 내부에 있었다. 대표이사외의 거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령탑과의 계약연장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어찌됐든 남 감독은 올해도, 아니 내년까지 계속 광주를 이끈다. 항간에 알려진 1+1년이 아닌 2년 연장이다. 통편을 보장하고, 지금까지의 팀 기조를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안정된 임기 보장이다. 감독대행 시절을 포함한 지난 2년 반에 이어 새로운 2년을 앞둔 남 감독과 대화를 나눠봤다.

-선수단 개편은 잘 이뤄지고 있나?

“아직 진행단계다. 광양 캠프에 참여한 26명에 더해 7명 정도 보강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선수 2명이 포함된다. 포르투갈(2차 전술)에서 직접 기량을 확인하고 뽑을 계획이다. (구단) 재정을 고려하다보니 스타트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 급할 필요는 없다.”

-선수를 데려올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나?

“아무래도 포지션 문제가 최우선이다. 팀 특성상 이탈자가 많다. 계속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1차 영입 인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 그런데 무작정 포지션이 맞다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간절함’과 ‘배고픔’을 본다. 우리는 챌린지(2부리그)에서 클래식(1부리그)으로 올라섰을 때 정말 간절했다. 그런데 잔류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느낌이 깨지더라. 항상 배고파야 한다. 정말 경기에 목말라 하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고, 꾸준히 찾고 있다.”

-대행까지 2년 6개월에 이어 ‘시즌 2’가 개봉한다. 어떤 목표가 있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무엇인가를 이뤄야 하는 촉박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주변에선 우리를 향해 ‘강등 1순위’라고 하지 않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행히 내 자신도 최대한의 지혜를 이끌어내고, 방향 설정을 하는 모한 능력이 생긴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은 잘 따라왔다. 함께 성장하고 있다. 늘 고민하고, 비우고, 또 채워내면서 걸음을 떼고 있다.”

-러브 콜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저기서 직·간접적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어렵게 감독생활을 하면서 이 팀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긍심과 뿌듯함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광주를 더 단단하고 강한 팀으로 구축하고 싶다. 주위에선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내실이 생기고 있다. 강등 걱정을 하지 않는 팀, 그럴 필요가 없는 팀을 만들고 떠나도 늦지 않다.”

-그간 어떤 부분을 배웠는가. 더 발전할 부분은?

“내가 가장 만족감을 느낄 때는 ‘성장’을 확인했을 때다. 고참이나 어린 친구들이나 광주에 오면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이들의 클래스를 어떻게 높여야할지 늘 고민했다. 다만 국내에 너무 몰두해 세계화의 흐름을 놓친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 FC서울 황선홍 감독 등 선배 지도자들의 준비를 곁에서 보고 흡수하고 있다. 아예 너머로나 자제히 들여다보고 노력한다.”

-광주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미지가 고착됐다.

“반대로 보면 어떤가? 그래서 더 성취감이 크다고. 계속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솔직히 시즌 종료 후 계속되는 전력이탈을 볼 때 허탈할 때도 많

다. 2~3년 더 하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는데...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정말이다. 그래도 그 허탈함과 막막함,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함이 더욱 큰 성취감을 주기도 하더라.”

-2017시즌 광주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클래식 잔류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6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대로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놓쳤다. 여기에 선수들의 발전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통편할 수 있는 모드를 만들고 싶다. ‘광주에 오길 잘했다’, ‘프로축구선수가 되길 잘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개인의 성장을 돕다보면 광주도 얼마간 높은 위치를 찾아가지 않겠다. 배고픈 모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선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감독? 이십점심의 관계처럼 좋은 게 있을까? 돈으로 선수를 살 수 있어도 마음까지 살 수는 없다. 전복과 최강희 감독을 보면 된다. 최대 능력이 꼭 자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말 감독을 하면서 딱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선수들의 마음부터 사고 싶다.”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을 간신히 면한 51점? 아직 내 자신을 모르니, 또 내 전술이 우리 팀에 어울리는지 모르고 있으니, 다만 나름 괜찮은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이 선만큼, 50점에 1점을 더 주고 싶다. 다만 아직 이렇다할 만한 우리만의 DNA는 찾지 못했다. 끈끈함을 모두에게 전파시키고픈 욕심은 있다.” 광양 1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광주FC 남기일 감독은 지난해 말 2년 계약연장에 합의했다. 자신을 '51점짜리 감독'으로 평가한 그는 남은 40점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2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 것이다. 광양 1 남장현 기자

남기일 감독

▲생년월일=1974년 8월 17일(전남 순천) ▲출신교=금호고~경희대 ▲프로선수 경력=부천SK(1997~2003년), 전남 드래곤즈(2004년), 성남일화(2005~2008년) ▲K리그 개인통산 성적=277경기·40골·34도움 ▲지도자 경력=천안시청 플라잉코치(2009~2010년), 광주FC 코치(2011~2013년)-감독대행(2014년)-감독(2015년~현재)

권오갑 총재, 책임있는 행보가 필요한 때



취재파일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단독 임후보였던 신문선(59)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치러진 제11대 총선선거에서 과반득표에 실패하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당분간 권오갑(66) 현 총재의 '임시체제'로 운영된다. 연맹은 '적절한 시기'에 재선거를 거쳐 후임 총재를 선출할 계획이다. 2017 시즌 K리그 개막이 3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총재 공백기간이 길어진다하면 한국프로축구 발전에 결코 득이 될 것이 없음을 볼

을 보듯 뻔하다. 적절한 시기에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책임자가 출마하지, 또 출마자가 경선이든 과반득표이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 총재로 선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16일 선거에서 후보가 단 한 명에 그쳤던 사실을 고려하면 책임자가 쉽게 등장할 것 같지도 않다. 당초 연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권 총재가 선거전에 불입하기 전 여러 기업구단주들에게 총재를 맡아줄 수 있는지 타진했었다. 한결같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터라 더욱 그렇다.

2013년 추대 형식으로 취임한 권 총재는 승강제 정착, 구단별 연봉·임장권 객단가 등 각종 지표 공개, 심판비리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많은 일을 했다. 특히 자신이 사

장을 지낸 현대오일뱅크가 K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도록 하는 등 연맹의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위기에 처한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권 총재가 다시 중책을 맡아 힘을 더해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권 총재가 '차라리 내가 맡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그것이 신 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권 총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K리그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편이 '순리'일 지도 모른다. 얼마 전 권 총재가 주변인사들에게 건넸던 "(연맹 총재를 더 하라는) 팔자인가 보다"는 말처럼 한국프로축구는 그를 더 필요로 하는 분위기다. 스포츠1부 기자

연맹은 16일 총회에서 '총재선거 후보 등록 공고 뒤 임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대의원 추대로 새 총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맹 정관은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권 총재에 대한 추대 절차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그러나 총재로서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 권 총재가 추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선거를 거쳐 당당히 11대 총재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4년간 권 총재는 적잖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연맹 총재라는 상징성이 큰 자리가 '기피 직책'이 되는 암울한 현실까지 겪진 못했다. 연맹의 재정자립도 확충, 도·시민구단과 챌린지(2부리그) 구단에 대한 지원책 강구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4년 뒤 후임자에게 기본 총재 바통을 넘겨주는 권 총재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염기훈, 4년 연속 수원삼성 캡틴 완장



염기훈(34)이 4년 연속 수원삼성 주장으로 선임됐다. 17일 수원 구단에 따르면, 서정원 감독은 전지훈련지인 스페인 말라가에서 염기훈을 2017년 주장으로 임명했다. 수원 구단 역사상 4년 연속 주장은 염기훈이 처음이다. 염기훈은 "4년 연속 주장으로 선임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단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주장으로는 수원 U-18(매탄고) 출신인 구자룡과 이종성이 뽑혔다.

네이마르, 유럽에서 가장 비싼 선수 1위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가 16일(한국시간) 발표한 유럽 5대 빅리그 소속 축구선수들의 가치 평가 자료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2억4680만유로(약 3106억원)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1억7050만유로(약 2146억원)로 2위, 풀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억5530만유로(약 1953억원)로 3위에 올랐다. 반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억2650만유로(약 1592억원)로 7위에 머물렀다. 손흥민(토트넘)은 4480만유로(약 564억원), 69위인 아시안선수 중 유일하게 톱100에 포함됐다.

U-20월드컵 상품화 사업자에 NXT 선정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가 NXT 인터내셔널(NXT)을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상품화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NXT는 조직위의 유일한 상품화 사업자로서 대회를 상징하는 엠블럼 및 슬로건(Trigger the Fever·열정을 깨워라)과 마스코트 차오르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할 권한을 갖는다.

'기틀→변화→썰기' 포항의 3단계 프로젝트

확바편 선수단...시즌 초 내실 다지기 주력

2017년의 포항 스틸러스는 싹 바뀌었다. 영광의 역사를 함께한 몇몇 '원 클럽 맨'들을 떠나 보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섰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포항은 올해 한 번 더 몸집을 줄였다. 모기업의 지원 축소와 맞물려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빠뜨린 것은 레전드급 선수들의 이탈이다. 황지수와 김광석을 붙잡는 데는 성공했다. 김원일(제주 유나이티드)과 신화용(수원삼성) 등이 이적을 택했다. 유망주로 꼽히는 문창진도 강원FC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포항을 이끌던 핵심 구성원 상당수가 팀을 떠난 것이다. 그나마 공격의 축 양동현과 심동윤을 지킨 것에 만족해야 할 처지다.

상당한 규모의 영입도 이뤄졌지만, 팬들의 높은 기대치를 고려하면 미흡하다. 김보민, 노동건, 조민우, 김동기 등이 새로 포함 유니폼을 입었다. 떠나보낸 선수들과 비교하면 인지도 측면

에선 크게 밀린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팀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 포항 최승호 감독의 생각이다. 최 감독은 "단순히 리빌딩이 아니라 재창단 수준이다. 각오했던 것들이 있는데, 허탈한 마음도 있다"며 "당분간은 내실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단의 재정적 안정과 내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시즌 상위 스플릿(1~6위) 진입을 목표로 삼은 최 감독은 3단계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기틀'과 '변화', 그리고 '썰기'다. 그 밑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시작된 태극 1차 전지훈련에선 체력과 조직력을, 다음달 초 진행될 제주도 2차 전지훈련에선 실전 감각을 다질 계획이다. 최 감독은 "선수구성에 변화가 많다 보니 시즌 초반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선수들이 적응을 마치면 중반기부터는 전술 변화를 주면서 승부에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승률을 높여 성적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대권 기자 seody3062@donga.com

'훈련장 부자' 대전, 클래식 비상을 꿈꾸다

보조구장 새 단장...훈련장 3면 확보
대전월드컵경기장 LED 전광판 설치

한때 떠돌이 생활의 선두주자였다. '가난하고 배고픈'이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대전 시티즌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배고프지도 않다. 젊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연봉도 톱클래스가 아니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어도 환경만큼은 나름 탄탄하다.

최신식,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꽤 알찬 인프라를 갖췄다. 지금도 도시민구단 일부가 갖지 못한 클럽하우스를 대전은 2014년도부터 활용하고 있다. 사계절 잔디로 구성된 전용훈련장도 2면이나 보유했다. 훈련장을 찾아 곳곳을 전전할 필요가 없다. 다가올 2017시즌, 창단 20주년에 맞춰 환경이 더 좋아진다. 먼저 훈련장이 추가로 확보된다. 대전월드컵경기장 보조

구장이 새롭게 단장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존 한국형 잔디를 갈아엎고 클럽하우스 훈련장과 똑같은 사계절 잔디를 다시 깔았다. 이제 훈련장으로도 무려 3개의 그라운드를 확보했다. 지난해까지는 클럽하우스 사정에 따라 대전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도 종종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보조구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출구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도 싹 바뀐다. 올 5월 국내에서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덕분이다. 대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그라운드 재정비와 별개로 LED 전광판이 설치되고, 최신식 음향 시스템도 갖춰진다. 대회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원정 스케줄이 잔뜩 몰리겠지만, 그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하다. 선수단의 1차 동계전지훈련이 진행 중인 경남 통영에서 만난 대전 구단 관계자는 "마땅한 훈련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시간이 었그제 같은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축구를 한다. 최선의 결실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영 1 남장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